

여배우의 몸과 권력, 그리고 저항: SBS의 고 장자연 자필편지사건 관련보도를 중심으로

Body of Actress, Power and Resistance :
focused on SBS News on Jang Ja-Yeon's Letters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Sook-Yeong Hong(marylou@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여배우의 몸에 대한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특종 보도한 SBS TV 8시 뉴스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뉴스의 이야기구조는 편지 사본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술집대·성상납, 접대를 강요당한 또 다른 여성 연예인, 리스트, 복수, 자살 등 선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무명의 신인 여배우'로 명명된 그녀는 여성이자 신인, 무명으로 낮은 계급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권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의 몸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소비되고 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서 여배우는 순백의 여신이자 귀여운 소녀, 섹시한 여성으로 재현되는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 때 '몸'은 상품가치의 근간이자 상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몸은 본질과 분리되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은 죽음으로 저항하지만 '몸의 부재'로 끝난다. 남성중심주의적, 소비 지향적, 계급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뉴스에서 한 여배우의 몸은 철저히 소비되고, 동시에 소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여배우 | 몸 | 권력 | 저항 | SBS 뉴스 | 장자연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news media covers Jang Ja-Yeon's scandal through analyzing texts and images about Jang Ja-Yeon described in SBS (Seoul Broadcasting System) Eight O'clock News. The study found that the news stories mainly covered lasciviously Jang Ja-Yeon's entertaining service, sexual service, other actresses who were forced to provide entertaining service, a list of people who forced her to serve, death, and vengeance. In addition, Jang Ja-Yeon in the news stories were described as "unknown actress," and she was located into low class and entertained the men in power. The analysis implicated that the body image of actress reflects a merchandize in the news media, and the news media used Ja-Yeon Jang's body image for news value which represents the society of reification, hierarchical and masculine society.

■ keyword : | Actress | Body | Power | Resistance | SBS News | Jang Ja-Yeon |

* 본 연구는 한세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0916-002

접수일자 : 2011년 09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2월 07일

교신저자 : 홍숙영, e-mail : marylou@naver.com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의 몸'은 오랫동안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근대화가 시작되고, 산업화가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육체는 기계화된 몸으로 체현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은 시위나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성의 책무를 2세 생산으로 제한시켜 둘 혹은 하나만 낳으라며 산아제한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한 적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여성의 권익이 증진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은 신체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출산 장려 정책'은 여성 개인의 선택보다는 여성으로 하여금 저출산의 책임을 묻고 출산을 유도하는 사회적 압력의 성격이 짙다. 또한 여성에 대해 권력을 지닌 남성의 시선은 여성이 신체와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도록 하며, 그 결과 여성들은 다이어트나 성형에 집착하고 심할 경우 섭식장애를 일으키거나 성형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2009년 3월 7일 신인 텔런트 장자연의 자살은 초창기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받아들여져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체계 인사들과 언론관계자들에게 성상납을 하고 술시중을 들었다는 장 씨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TV뉴스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사회적 권력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선정성을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장자연 사건은 2년 뒤인 2011년 3월 6일 SBS가 장 씨의 자필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하면서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장 씨의 친필이 아니었고 제보자의 자작극으로 판명되었다. 장자연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 자본과 미디어 권력의 압력이 가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TV뉴스에서 이를 선정적으로 다루어 사회 구조적인 병폐의 개선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언론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사실을 객관적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1], 오늘날 미디어는 뉴스 생산자 관점에서 뉴스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수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여 보도한다[2].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과장되거나 심지어는 사실과 동떨어진 뉴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장자연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4개월 넘게 조사하였고, 2009년 7월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모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2명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5개월의 심리 끝에 2010년 11월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와 전 매니저 유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지만, 검찰과 피고인 2명이 모두 항소하였다[3].

본 연구는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뉴스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이를 다룬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의 뉴스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상파 3사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KBS의 경우 9시 뉴스에서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총 8회 다루었으며, MBC는 총 6회 관련 보도를 하였다. 두 방송사는 첫 번째 뉴스에서 편지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었을 뿐 이후 뉴스에서는 자필 편지의 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반면 SBS의 저녁뉴스는 총 12회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자필 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여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사건으로 이끌어갔다. 이 같이 KBS와 MBC의 뉴스는 본 논문이 고찰하고자 하는 여배우의 몸에 대한 뉴스의 인식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BS의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SBS TV의 8시 뉴스를 중심으로 '여성의 몸과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뉴스에 담긴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문헌 및 이론검토

1. 몸과 여성에 관한 고찰

오랫동안 인간의 몸은 정신에 비해 열등하고 하급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특히 데카르트는 생각하므로 존재한다는 존재론을 전개함으로써 몸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의 연장선에서 정신은 남성적인 것, 몸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푸코는 이처럼 평가 절하된 몸의 위치를 끌어올렸으며, 몸을 담론의 중심에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인간의 물질적인 면 즉 육체에 주목하여 어떻게 하여 권력 장치가 육체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지를 비롯한 “육체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4]. 이후 몸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이라는 범주와 여성이 갖는 ‘종의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의심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몸을 문화적 형식이자 ‘훈육적 권력’의 장소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5].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주의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쉬빙거는 여성의 몸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에 주목하여 몸 정책(body politic)을 연구하였으며[6], 터너는 여성의 욕망에 대한 남성들의 통제에 주목하면서 ‘신체사회’란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 때 신체사회란 “주요한 정치적·도덕적 문제들이 인간의 몸이라는 도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7]. 보르도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과 젠더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순수한 정신은 남성의 속성으로, 친한 육체는 여성의 고유한 성질로 자리 잡았으며 이처럼 젠더화된 속성이 광범위하게 제도와 문화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8]. 20세기 몸철학자로 대표되는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나 칸트의 철학이론에서 인간주체를 의식, 사유주체로 보고 세계를 정신의 구성물로 보는 주지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몸을 바라보는 경험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입장도 비판하였다[9].

2. 여성의 몸에 관한 국내연구

몸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여성의 노동력과 사회적

관계, 여성의 외모, 저출산 정책과 여성의 몸, 언론에 나타난 여성의 몸담론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장수정은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으며[10], 정재철은 TV토론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살빼기와 성형 열풍을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 몸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였다[11]. 이수안은 여성의 몸은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적인 창구이며 일상적 인식의 기초이자 일상을 영위하고 세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섹슈얼리티와 생산, 노동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장소라고 하였다[12]. 김은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하향식 가족계획 사업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몸이 ‘출산’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회적 몸 social body”이 되고 이에 따라 유교적 규범 속에서 내밀하게 논해지던 여성의 출산과 피임의 문제가 공공연한 정치적 담론이 되어갔다고 강조하였다[13].

이와 같은 논의들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지배당하고 유연한 몸이 되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여성의 주체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백선기는 장자연 자살을 계기로 2009년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KBS, MBC 및 SBS의 장자연 관련 뉴스를 ‘기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여배우’ ‘섹슈얼리티’ ‘성 상납’ ‘기획사 대표’ ‘PD 및 연예계 주요 인물들’ ‘사회의 권력자 및 실력자들’ ‘남성’ 등의 기호들이 혼재되면서,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복잡한 연계들’이 ‘선정적인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를 지니면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14]. 이러한 논의는 여배우의 자살을 둘러싸고 미디어에서 쏟아낸 단어들이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나 여배우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복철은 몸과 정치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정치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주체화하면서 정치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며[15], 이영자는 낯선한 몸관리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고 몸을 주체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개인의 몸을 가부장적 자본의 권력에 편승시키는 적극적, 자발적 실천이라며[16] 여성의 몸과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홍숙영은 아동성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아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자 인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보다는 ‘작고 쉬우며 약한’ 여성의 몸으로 성적 대상화된다고 주장하면서[17] 결국 아동성폭력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여성의 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동, 출산, 다이어트, 성형 또는 TV나 광고,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여성과 정치, 자본, 또는 권력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같은 연구는 대부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상업성,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자연 자필 편지 사건을 보도한 SBS 뉴스의 서사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성의 몸과 관련한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3월 방영된 장자연 자필편지 사건을 방영한 뉴스는 어떠한 서사구조를 가지는가?

둘째, 뉴스는 여성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장자연 사건을 다시 다룬 TV뉴스에 포함된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SBS TV의 8시뉴스에 방영된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의 이야기구조와 텍스트,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뉴스에 담긴 여성과 몸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며 몸과 권력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TV뉴스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자연 자필편지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하여 뉴스의 이야기구조와 발화내용 및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TV뉴스에 담긴 여성의 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매일 저녁 8시부터 약 40분간 SBS에서 방영되는 ‘SBS 8시 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장자연 자필편지사건’ 관련 기사를 추출하였다. 연구자는 2011년 3월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다룬 12건의 SBS 뉴스 기사를 SB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시보기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반복 시청하면서 내레이션을 녹취하고 각 장면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18].

뉴스 텍스트 분석은 질적 분석 방법으로 채트먼의 이야기분석 방법과 바르트의 담론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채트먼은 서사물을 크게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야기는 내용의 형식으로 행위와 돌발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사건적 요소와 등장인물과 배경을 포함한 사물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담론은 표현의 형식인 서사적 전이 구조와 표현의 질료가 되는 언어, 영상, 무용, 연극 등 발현 매체를 포함한다[19]. 바르트는 이미지 분석에 있어 언어학적 메시지, 코드화된 도상적 메시지, 비코드화된 도상적 메시지의 세 가지 층위를 제안한다. 이 때 코드화된 도상적 메시지란 겉으로 드러난 외시적(dénotée) 이미지를 의미하며, 비코드화된 도상적 메시지란 내적으로 함유된 공시적(connotée) 이미지를 뜻한다. 바르트는 모든 이미지는 다의적이며 시니피앙 아래에 숨어서 그 독자가 어떤 것은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시니피에들의 “고정되지 않은 연쇄”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언어적 메시지는 상당히 직접적이어서 “정박(ancrage)”해 있다고 하였다[20]. 백선기는 고정되어 있거나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는 텍스트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개념이 바로 담론이라고 보았다[21].

본 연구는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다룬 SBS 8시 뉴스 12건의 이야기 구조와 등장인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항대립 구조를 분석하여 뉴스에 담긴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뉴스에 등장하는 장자연이 어떻게 명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자연의 이미지를 층위에 따라 외시적 의미, 공시적 의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신인 여배우의 몸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고 장자연 자필편지 사건' 보도의 이야기구성

뉴스는 고 장자연 자필편지 50통을 입수하였다는 보도의 이야기구성에 편지에는 기획사, 제작사, 대기업 관계자 등 31명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전문가 감정 결과 장 씨의 필체로 확인되었다는 단독보도로 시작한다. 편지에 따르면 장 씨는 강요된 술자리에 나가 100번도 넘게 악마들을 만나야했고, 결국 자살이나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침대가 놓인 접견실의 사진이 등장하고, 변호사는 장 씨 편지의 증거 능력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편지의 진위여부에 따라 재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편지에서 장 씨는 자신과 같이 접대를 강요당한 연예인이 더 있다며 자살한 선배들이 부럽다고 말해 비극적 운명을 예고한다.

편지에서 장 씨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지인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기자는 2009년 경찰이 리스트의 일부를 확보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금도 재수사를 주저하고 있다며 비난하며, 접대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편지내용을 인용하여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경찰은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편지 원본을 확보하고, 범죄 심리관을 교도소로 보내 장 씨 지인에 대한 심리상태 분석을 실시한다. 봉투의 조작흔적을 위조증거라고 발표하는 경찰에 대해 SBS는 전문가 감정결과 이 장 씨의 친필이며, 수감상태의 전 씨가 유서 사진만으로 위작이 불가능하고, 3년간의 사연을 지어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국과수는 편지 원본과 장씨 필적이 상이하다고 발표하며 과대망상증상의 전 씨가 편지를 위조했다고 결론짓는다. 경찰은 재수사하지 않으나 연예계 불법 집중단속 방침을 밝히고 SBS는 사건의 경위를 보도한 뒤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일단 수용하며, 시청자에게 혼란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겨준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향후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

표 1. SBS의 장자연 자필편지 관련 보도의 이야기 구조

방송일시 및 뉴스 타이틀	이야기 구조
2011.03.06 고 장자연 자필편지 50통 입수 "31명 접대"	SBS는 고 장자연의 자필편지 50통을 입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 기획사 대표의 성상납 내용 부인 기획사, 제작사, 대기업, 언론사 등 31명 접대 전문가 필적 감정 결과 장 씨의 필체라는 결론
2011.03.06 "그들은 악마...내가 죽더라도 복수해 달라"	100번 넘게 접대에 나가 악마들을 만나야했음 가라오케, 룰상룸에서 접대 자살과 복수라는 말이 등장함
2011.03.06 편지 존재 알고도 덮어...일부러 외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끝난 이전 수사 편지 관련 경찰의 진상 은폐 의혹 제기 경찰이 편지를 확보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2011.03.07 '장자연 사건' 핵심 진술 확보하고도 목살	경찰이 핵심 증언·진술을 확보하고도 목살한 정황 침대, 샤워실이 딸린 접견실 사진 입수 기획사 대표 측은 법정에서 접견실이 없다고 했음 변호사가 편지 증거능력 및 수사당서 가능성 언급 장 씨 지인과 편지에 대한 경찰 조사 착수,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법무장관의 답변
2011.03.07 고 장자연 편지 "나 같은 피해자 또 있다"	접대를 강요당한 연예인이 더 있다는 편지 내용 장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들 거론하면서 자살한 선배들이 부럽다고 말해 비극적 운명을 예고
2011.03.08 고 장자연 편지 "가해자 리스트 외 부 보관" 주목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지인에게 복수를 부탁, 명단에 대한 지인의 언급 2009년 경찰은 리스트의 일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재수사를 주저하고 있음
2011.03.08 검찰, 장자연 사건 관련 '무혐의' 부실 수사 의혹	2009년 검찰은 기획사, 제작사 대표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획사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음 장 씨 지인은 편지에 대해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 접대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편지내용
2011.03.09 경찰이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편지 원본을 확보할 것	경찰, 원본추적 '장자연 편지' 확보... 검찰은 국과수 필적 감정 후 재수사를 벌일 방침
2011.03.10 장자연 편지문건 "우체국 소인 오려낸 흔적 있다"	형사과장이 압수한 물품 중에 편지봉투 사본이 있었고 소인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함 편지 조작을 위해서라기보다 편지 발송신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오려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2011.03.10 경찰은 봉투의 조작흔적을 위조증거라고 발표할 것	전문가 감정결과 장 씨의 친필이라는 SBS주장 유서 사진만으로 위작이 불가능하며, 위조라는 예단은 경찰 수사인지 부족을 드러냄
2011.03.16 국과수 "장자연씨 필적 아니다"...재수사 않기로	편지 원본과 장 씨 필적이 상이하다는 국과수 발표 과대망상증상의 전 씨가 편지를 위조했다는 결론 고인의 자필문건을 보고 연승하여 위작함 재수사 하지 않으나 연예계 불법 집중단속 방침
2011.03.16 장자연 편지 필적 진위, 국과수 결론 수용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 사과 후 경위 보도 장 씨 편지사본, 수사재판 기록 입수, 친필로 추정하고 보도하였으나 언론사의 한계에 불참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일단 수용하며, 시청자에게 혼란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겨준데 대한 유감 사건 실제 규명을 위한 노력 약속

SBS의 장자연 자필편지 사건 보도는 6일간 12건을 보도하여 이 가운데 10건의 오보를 남겼다. 뉴스에서

장자연의 몸은 이미 죽은 '실체 없는 몸'으로 '몸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상납, 접대, 시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외형상으로 뉴스는 장자연 자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언론의 사명감을 표방하고 있으나 추측과 의혹, 주관적이거나 선부른 판단을 위주로 원본이 아닌 '사본'이자 그 원본마저도 위작된 가짜 편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SBS 보도는 화면을 통해 자필 편지의 내용 가운데, '술접대, 성상납, 성납 요구, 악마, 오라면 가라면 벗으라면, 꼭 복수를, 노리게 삼아, 죽고 싶다, 죽고 싶은 맘뿐, 죽어서라도 꼭 복수를' 등 편지 사본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상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강조한다. 이처럼 SBS 8시 뉴스에 나타난 일련의 뉴스들은 소비와 쾌락, 자극이 중심이 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SBS 8시 뉴스는 사건의 전개과정과 처리에 있어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장자연 지인이라는 자로부터 입수한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이름과 장자연을 서둘러 연계시키는 한편 권력을 악마화하고, 권력에 대한 복수를 서둘러 강조하면서 여성과 권력, 물질의 도식을 그대로 따라간다. 따라서 특종에 급급한 SBS 뉴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선정적이고 소비적이며 동시에 비현실적이다. 편지에 의존하여 구성된 뉴스는 결국 시뮬라크르에 불과하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된다[22]. 뉴스는 오보로 판정이 났으나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뉴스는 명확히 취재가 거짓이라거나 오보라고 밝히지 않고, "일단" 받아들인다고 여운을 둔다. '일단'은 "우선 먼저, 잠깐"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몰라서지만, 나중에는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으로 여성에게 작용한다. 죽음으로써 몸이 분리된 한 여성과 관련하여 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뉴스를 보도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수용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SBS의 의지를 고려한다면 결국 진실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모든 것은 망상증 환자의 환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불분명하다. 기자나 경찰이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소극적이며,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거짓 뉴스에 의해 진실에 대한 욕구는 이미 소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2. 등장인물

SBS 장자연 자필사건을 보도한 12건의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는 모두 38회로, 이 중 남자는 31회, 여자는 7회 등장하였으며, 이는 장자연의 영상을 제외한 숫자이다.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초창기 뉴스에는 남성 앵커가 리드를 낭독하였으나 뉴스의 후반부에는 연속 4회 여성 앵커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공격적인 기사가 시작되고 전개될 때 남성앵커의 강한 어조로 서사가 진행되었으나, 설명과 설득, 그리고 사과를 하는 부분에 가서는 여성 앵커의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내러티브가 진행되어 뉴스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12번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성 11명, 여성 1명으로 경찰 5회, 소속사 대표 1회, 감정 연구소 관계자 1회, 국과수 관계자 1회, 장자연씨 지인 2회, 장자연씨 지인가족 1회, 여 변호사 1회이다.

SBS의 뉴스와 비교할 때 KBS 뉴스는 총 8건의 기사에 14회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경찰 관계자 11회, 국립과학연구소 1회, 대학생 1회, 인권센터 활동가 1회가 포함되었다. 한편, MBC 뉴스는 편지 관련 기사를 총 6회 방영하였으며, 여기에 법무부 장관 1회, 경찰 4회, 프로파일러 3회의 인터뷰 등 모두 8회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표 2. 장자연 자필편지 보도의 기사건수 및 인터뷰 횟수

	SBS	KBS	MBC
기사건수	12	8	6
인터뷰횟수	12	14	8

SBS 뉴스는 KBS나 MBC와 비교할 때 장자연 자필 편지 관련 기사의 건수는 훨씬 많으나 뉴스에 등장하

는 인터뷰 횟수의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의 질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BS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의 내용도 과거의 자료 화면을 사용한 건수가 3회이며, 사건 담당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인터뷰가 턱없이 부족하여 뉴스에 대한 다각적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데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성급하게 특종으로 보도하였으나 전체적인 뉴스의 틀은 장 씨 지인이라는 자의 ‘편지사본’에 의존하여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본을 작성한 자의 선정적인 이야기 구조를 따라 뉴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름 짓기와 몸

푸코는 폭력의 초기 형태는 이름 지어지거나 혹은 한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규정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맥카넬은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을 무언가로 이름 짓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폭력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23]. 이는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며, 본연의 성질과 명명된 존재를 분리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제 3의 시선을 항상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결국 여성을 어떠한 계급에 위치시키고,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부르디외 역시 ‘칭호’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칭호부여를 통하여 은폐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칭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분을 가르는 특수한 방식 중의 하나로, 모든 집단은 각 개인에게 위계상의 특정한 계급을 지정한다고 하였다[24].

뉴스에서는 ‘장자연’을 지시하는 단어로 ‘고 장자연 씨, 장자연 씨, 장 씨, 무명의 신인 여배우, 그녀, 무명, 고인, 접대를 강요당한 연예인, 연예인인 장자연 씨, 29살 여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편 장자연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 ‘접대’가 24회(‘술접대’ 2회 포함)로 가장 많았으며, 죽음과 관련한 표현(‘자살’ 4회 포함)이 12회, ‘복수’ 8회, ‘강요’ 7회, ‘성상납’이 2회 등장한다.

무명(신인)의 여배우로 명명되고 있는 장자연은 전체적으로 연예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성이자 신인, 그리고 무명으로 가장 낮은 등급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녀에게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권력자인 기획사와 PD, 그리고 재정적 권력자, 언론 권력자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접대’를 강요한다. 이 때 접대는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한 성접대 혹은 술접대이며, 무명 여배우의 몸은 권력 앞에 철저히 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몸의 이미지

장자연이라는 여배우의 몸은 뉴스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미지로 등장한다.

표 3. 몸의 외시적공시적 이미지 분석

	외시적(dénottée)	공시적(connotée)
1	시상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여신 같은 자태를 드러내며 미소 짓는 아름다운 여배우의 모습	자살하기 9일전 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웃지만, 그 자리가 편하지 않을 것
2	드라마 속 배역 귀엽고 발랄한 여고생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고생으로 등장하나 실제 그녀의 나이는 29세이며,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
3	검은 드레스를 입은 관능미 넘치는 모습	섹시함, 도발, 관능미는 몸을 도구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
4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의 모습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존재가 상실됨

대중들에게 여배우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지적이며 발랄하고 때로는 관능미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접대를 강요당하고, 소비사회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압력이 몸을 짓누른다. 결국 대중문화의 재현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여성의 몸은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신체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25]. 여기서 무명의 신인 여배우에게 ‘모든 것’은 인기와 부, 명성을 얻는 스타가 되는 것이지만, 이는 PD, 기획자, 제작자, 재력가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따라서 그녀의 몸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병든 몸이 된다. 여배우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를 들춰내고자 한다.

보르도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의 방식 역시 여성들을 그들의 몸으로부터 소외시킨다”고 하였다[26].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여성은

강박적으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 혹은 거식증 같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여성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무명의 신인 여배우이자 29살 여성의 몸은 대중문화 속에서 순백의 여신, 지적인 여성, 귀여운 소녀, 섹시한 여성의 몸으로 재탄생한다. 여기서 몸은 그녀의 상품가치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상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그녀에게서 몸을 소외시키는데, 이러한 가치가 그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접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대상자는 기획사나 제작사 대표, 계인사, PD 등 권력을 지닌 남성들이다. 정체성과 만들어진 몸이 분리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여성은 분노하거나 우울해 하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권력과 압력에 저항해 보지만, 죽음은 고통받는 여성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시킬 뿐이다.

V. 결론

2009년 3월 자살한 신인 여배우 고 장자연씨는 2011년 3월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는데, 이를 최초 보도한 SBS 뉴스의 서사구조는 편지의 사본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술접대·성상납, 접대를 강요당한 또 다른 여성 연예인, 리스트, 복수, 자살 등 선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터뷰 자료 화면을 재사용하거나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대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뉴스의 질적인 부분에 소홀하였다. 이같이 이미 고인이 된 한 여배우에 대해 무례하고 일방적이며 무성의한 보도는 여성을 더욱 무력화시키고, 신인 여배우에 대한 사회적 범주화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뉴스가 여배우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 장자연에 대한 이름 짓기와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장자연’은 무명(신인)의 여배우로 명명되어 여성이자 신인, 그리고 무명으로 낮은 등급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대중문화 속에서 순백의 여신이자

귀여운 소녀, 섹시한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며, 이때 ‘몸’은 그녀의 상품가치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상품이 되지만, 이는 본질적인 몸과 분리된다.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은 죽음으로 저항하지만, 죽음은 ‘몸의 부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특종 보도한 SBS 뉴스에서는 남성중심주의적, 소비지향적, 계급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연기자의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았으며, 45.3%는 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27].

장자연 자필편지와 관련한 SBS 뉴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배우에 대한 남성중심의 소비 지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여배우, 특히 무명의 신인 여배우를 범주화함으로써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과 몸을 분리시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TV뉴스는 신인여배우의 사건을 재현하지만, 이는 곧 신인여배우에 대한 범주화이자 동시에 또 다른 여성을 이 범주에 포함시켜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여배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문화산업의 종사자라기보다 성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소비되는 제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대중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경우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의 행사에 무기력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중문화에 편안함을 느낄 수 없도록 문화가 제공하는 힘과 쾌락에 대해 건강한 회의주의가 필요하다[28].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된 고 장자연씨의 자살 관련 보도 가운데 자필편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 TV뉴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를 특종 보도한 상업방송사인 SBS에서 여배우의 몸과 관련한 포스트모던 보도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선정성이 부각되었다. 연구자는 예초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의 뉴스를 모두 다루고자 하였으나 KBS와 MBC에서는 편지의 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여성의 몸과 관련한 시각은 두드

리지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SBS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케이블 방송사의 뉴스나 연예계 뉴스에 이르기까지 분석 대상을 확장시켰더라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양한 뉴스채널에 나타난 뉴스 콘텐츠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박덕춘,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의제설정 효과-환경뉴스를 중심으로”, 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1호, pp.72-82, 2011.
- [2] 박덕춘, 2011.
- [3] 김경태, “다시 불거진 장자연사건 어떻게 진행됐나”, 연합뉴스, 2011.03.08.
- [4]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 삶의 의지*, 나남, 2004.
- [5] 수전 보르도, 박오복 역,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 페미니즘 · 서구문화 · 몸, 또 하나의 문화*, 2003.
- [6] Londa Shiebinnger, *Feminism and the bod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7] 브라이언 터너, 임인숙 역, *몸과 사회*, 몸과 마음, 2002.
- [8] 수전 보르도, 2003.
- [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 시각 · 쟁점 · 역사*, 창비, 2005.
- [10] 장수정,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제2호, pp.37-70, 2005.
- [11] 정재철, “한국의 여성 몸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1호, pp.292-318, 2007.
- [12] 이수안,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 젠더와 문화, 제3권, 제2호, pp.7-36, 2010.
- [13]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 [14] 백선기, “에로틱한 미스터리로 남은 여배우의 자살 : ‘장자연 자살’ 관련 보도 분석”, 신문과 방송, pp.44-47, 2009(5).
- [15] 정복철, “‘몸의 정치학’페러다임의 탐색”,

OUGHTOPIA, 제23권, 제2호, pp.177-216, 2008.

- [16] 이영자, “몸권력과 젠더”, 한국여성학, 제22권, 제4호, pp.197-233, 2006.
- [17] 홍숙영, “TV다큐멘터리의 아동성폭력 재현 방식-‘KBS 시사기획 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102-112, 2011.
- [18] http://news.sbs.co.kr/review/indexes/8news_index.jsp
- [19]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 [20] 톨랑 바르트, 김인식 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4.
- [21] 백선기, *보도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22]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2001.
- [23] 카롤라인 라마자노글루 외, 최영 외 역, *푸코와 페미니즘, 그 긴장과 갈등*, 동문선, 1998.
- [24] 베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취향의 사회학*, 새물결출판사, 2005.
- [25] 수전 보르도, 2003.
- [26] 수전 보르도, 2003.
- [27] 정현용, “여성 연기자 60% “성접대 제의 받아” 인권위, 연예인 인권실태 조사...‘스폰서’로 불리는 유력 인사와 만남 제의”, 서울신문, 2010.04.28.
- [28] 수전 보르도, 2003.

저 자 소개

홍 숙 영(Sook-Yeong Hong)

정희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1996년 10월 : 프랑스파리2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 2007년 2월 : 프랑스파리2대학교 언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상콘텐츠, 뉴스콘텐츠